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그래야 세상이 변하니까

역사에 선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비우면서 살았다. 술잔도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세상사 모두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비우려고 하지를 않는다. 물론 말로는 비운다고 한다. 푸진 소리들도 한다. 엄청난 돈을 벌어 기부하고 주변인들을 대접하면서 자신은 손해본듯하며 삶을 영위한다고도 한다. 그런데 정작 부딪쳐보면 그렇지가 않다.

과연 언제, 누구에게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다. 오히려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정상적인 음식 값도 깎는다. 직원들의 복지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 급여도 빈약하기가 이를 데 없다.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닦달한다.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해고한다고. 잘하는 직원도 내키지 않으면 역시 해고다.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갑의 횡포다. 만용이다. 하지만 특수직에서까지 갑질을 하면 곤란하다. 유능한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글을 쓰는 분야는 더욱 그렇다. 누구나 글을 잘 쓸 수는 없다. 박학다식하다고 해서 잘 쓰는 것도 아니다. 구술이 세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 했다. 그렇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견문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잘 꿰어야 한다. 잘 꿸수록 구슬은 빛난다. 그러지 않으면 쓰레기만도 못하다.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갑질이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이런 갑한테는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체로 그 주변인들 역시 평생 빌붙어 살 쓰레기들인 경우가 많다. 보신에만 연연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갑의 횡포는 더 심해지고 을은 더더욱 초라해지는 것이다. 참으로 구역질 나는 참상만 전개될 뿐이다. 그렇게 쓰레기들의 행진만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갑도, 을도 비우지 않기 때문이다.

갑은 욕심을 비우고, 을은 비열함을 비워야 하는데도. 피차간에 배려와 소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계도, 관계도, 재계도, 문화계도, 언론계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겉모습은 오랜 세월을 거쳐오면서 엄청나게 변했어도 그 내면의 세계는 역시다. 때문에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경전이 오늘날에도 역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고, 불경이 그렇다. 사상가들의 글들이 그렇다. 에니어그램 등 성격풀이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근본은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업보라 할 수 있는 욕심보 때문일 것이다. 자자, 이제 좀 변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부터 구조조정 해야 하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인류생성 시부터 형성된 업보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인간은 신이 아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세상을 보드랍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는 기할 수 있다. 예수의 제자들을 보라. 제자가 되기 위해 어부 베드로는 생계수단인 그물을 던져 버렸다. 야고보나 요한은 자신들의 울타리인 아버지와 삯꾼들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으면 편안하게 살았을 것인데도 말이다. 물론 그들도 인간이었기에 예수에 대한 배신도 거듭했다.

하지만 근본만은 변하지 않았다. 예수를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 말이다. '갑'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여! 추악한 욕심보를 버려라. '을'이라 생각하는 자들이여! 비열한 생각을 버려라. 그래야 세상이 변한다. 그것이 곧 모두가 잘 사는 길이다.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불법주차 Out, 안심주차 In"

자연이 깨어나는 따스한 계절 봄이 다가왔다. 한겨울의 추위와 침체를 뒤로 한 채, 새로운 생명과 활력이 도는 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도 화재의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특히 봄철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많이 불어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하여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도와주는 중요 소방시설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무심코 불법으로 해당 시설 앞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서 소방활동에 직·간접적 방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소화전 불법 주·정차는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해당 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더불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적극 홍보하여 주·정차는 반드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는 안심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강진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곽병준

기고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최근 몇 년 간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 현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와 같은 행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산불의 위험을 높이며, 인명과 재산 피해는 물론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예방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봄철, 바람이 강한 날씨에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전통적인 농업 관행'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큰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쓰레기 소각은 가벼운 불꽃이 바람을 타고 쉽게 확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불법 소각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가 나무와 풀을 태우고, 결국 산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대신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논·밭두렁 태우기도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논밭의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예기치 않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 농민들은 기계적인 잡초 제거나 유기농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농사를 짓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대안은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성묘 시 초를 태우는 행위도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강한 경우, 초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의 마른 풀과 나무로 옮겨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산불이 발생하면 초기진화가 중요하지만, 인적이 드문 장소이므로, 작은 불씨라도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구례경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순찰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 방법을 알리고, 불법 소각이나 논·밭두렁 태울 시 신고하기, 성묘 시 초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게 시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전한 농촌을 위해서는 모든 주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작은 실천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가길 바라며, 함께하는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경장 이지완

오늘의 운세 2025년 4월 18일 금요일 (음력 3월 21일)

48년생 생색내지 마라. 가치만 떨어진다.60년생 품격이 담겨있는 제안을 들어보자.72년생 선생님 말씀 정답임을 알아내자.84년생 힘들고 궂은일이 보람을 더해준다.96년생 첫술에 배부르랴, 땀을 흘려야 한다.

49년생 왁자지껄 잔치 춤추고 노래하자.61년생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진다.73년생 따가운 시선에도 자유를 가져보자.85년생 들어서는 안될 말 귀를 씻어내자.97년생 충분한 이해 받아들임이 필요하다.

50년생 과감한 변신 새로움에 도전하자.62년생 축하 박수의 주인공이 되어보자.74년생 사서 했던 고생 비싼 값을 받아내자.86년생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난다.98년생 누구라는 이름 계급장이 붙어 진다.

51년생 잘한다, 소문이 천리까지 전해진다.63년생 살림 규모를 줄이고 낭비를 막아내자.75년생 보여지는 욕심 초라해 보여진다.87년생 찾아가는 수고 점수를 크게 한다.99년생 아름다운 상상이 현실이 되어 간다.

52년생 앙금은 남았지만 화해를 서두르자.64년생 도 아니면 모 중간이 없어야 한다.76년생 전혀 모르던 사실 공부는 덤이다.88년생 묵묵히 했던 준비 출발선에 서보자.00년생 지나친 월권행위 적을 만들어낸다.

53년생 방해도 견제도 모른 척 해야 한다.65년생 서로에게 반하는 만남을 가져보자.77년생 급하면 손해 느긋함을 지켜내자.89년생 마냥 웃을 수 없는 책임이 맡겨진다.01년생 성공이라는 기준 고민을 다시 하자.

54년생 기다렸던 인연 애틋함을 나눠보자.66년생 조심스러운 예측 만세가 불려진다.78년생 거래나 흥정 복덩이를 얻어내자.90년생 멋으로 하지 마라. 진짜만 보여주자.02년생 느리지만 정확히 목표를 향해 가자.

55년생 주머니 속에 있는 행복을 꺼내보자.67년생 져본 적이 없는 승부에 나서보자.79년생 거절은 차갑게 뒤끝 남기지 마라.91년생 미련도 후회도 바람에 실어내자.03년생 달라하는 부탁 얼굴을 두껍게 하자.

56년생 편하고 안전한 차선을 가져오자.68년생 흥이 오른 자리 체면 따위 던져내자.80년생 모진 풍파 지나고 꽃길을 걸어보자.92년생 끈질긴 구애로 마음을 얻어내자.04년생 배우려는 자세 모범생이 되어보자.

57년생 나누는 인심 배가 되어 돌아온다.69년생 가슴 속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보자.81년생 섭섭함 보다는 뿌듯함이 우선이다.93년생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을 받아보자.05년생 불편한 상황에도 약속을 지켜내자.

58년생 뜨거운 위로에 기운을 다시 하자.70년생 말하는 자랑보다 지갑을 열어보자.82년생 특별한 손님 반색하면 맞아보자.94년생 몽글몽글 새로운 희망이 다가선다.06년생 얼마나 좋은지 그림으로 그려보자.

47년생 난관은 있지만 결과는 화려하다.59년생 여간 고역이었던 숙제를 마쳐보자.71년생 지레짐작 엄살 실패와 만나진다.83년생 관심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낸다.95년생 다잡은 기회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 장	이 송 암	발행인 · 대표이사	정 길 화
편집인	전 광 춘	편집국장	박 선 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525-9775	<팩 스>	(062)528-4566
회장실	(내선)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13.000원 · 1부700원